

한일아시아기금 뉴스레터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2008년 7월 No.26

캄보디아 소식

유치원이 곧 완성된 것입니다

아시아 미래학교 수료생들이 다니는 이웃 동네 루세이산 초등학교 교내의 유치원 설립 프로그램이 3월말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창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생각보다 빨리 7월 18일에 지붕도 완성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예정대로 여러분이 이 뉴스레터를 보실 때에는 유치원이 완공되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는 캄보디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중이라 캄보디아의 새



7월 16일의 모습

아시아 미래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아시아 미래학교(AFS; Asia Future School)가 다음과

~차 례~

캄보디아 소식

유치원이 곧 완성될 것입니다	1
아시아 미래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2
아시아 미래학교 발자취 그 경과와 성과	3
제 5회 「비빈 모임」	4
제 6회 「비빈 모임」 안내	5
스태프 소개	5

학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원식에는 한일아시아 기금의 일본측 대표이사 에모토 씨도 참석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앞으로의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현지 스태프와 의논 할 예정입니다. 기금 창시자인 우수근 씨도 형편이 되면 개원식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어 6월말에 폐교하였습니다.

1 학생수 감소

이 학교의 학생수는 많을 때는 최고 140 명이 넘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10 명 전후로 감소했습니다. 이 10 명도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웃 동네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보충수업을 위해 미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2 학생수 감소 이유

AFS 가 위치한 안론콘 타마이 마을에 2005 년에 외국 NGO 의 지원으로 유치원이 개원되면서 마을 아이들은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분위기가 점차 정착되어 최근에는 AFS 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거의 없으며 마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없어졌습니다.

원래 AFS 는 이 마을 취학 연령기 아동 300 명 가운데 약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놈펜시 교육 청소년 스포츠국 요청으로 개교한 것으로 현재 상황이라면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어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미래학교의 발자취 그 경과와 성과

1 경과

1-1 개교까지

이 학교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해 한일 아시아 기금이 건설 자금과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2003 년 4 월에 개교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시 중심부 슬램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2001 년 12 월에 화재로 집을 잃고 행정부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 수준은 낮고 초등학교도 절도 없으며 아이들의 절반은 이웃 동네에 있는 루세이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캄보디아 교육 청년 스포츠부가 제정한 읽기·쓰기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초급/1/2/3 이라는 교과서 4 권으로 하루 2 시간씩 주 5 일 수업을 들으면 초등학교 3 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2 개교 후 반년 동안의 모습

개교 한 달 후에는 한 학급당 25 명~30 명으로 4 학급이 생겼고 오전·오후 2 부제 수업을 하며 전교생이 100 명이 넘었으며 두 달 후에는 5 학급 150 명 정도까지로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을에서 학교에 안 다니던 아이들은 거의 다 AFS 에 입학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읽기·쓰기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루세이산 초등학교로

편입하는 아이들이 17 명이나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에는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로 AFS 가 생긴 덕분에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1 - 3 안정기

개교 후 1 년 반이 지난 2004 년 가을에는 50 명이 과정을 수료하고 루세이산 초등학교로 편입하여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AFS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성적이 우수하며 그 중에서도 학급에서 일등을 차지한 학생이 있어 이 또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1 - 4 외부 환경의 변화

2005 년 가을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유치원 개원입니다. 여기는 급식 제공으로 원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외국 NGO 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난폭한 방법을 도입한 결과 읽기·쓰기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 28 명이 한꺼번에 루세이산 초등학교에 편입하게 되어 AFS 의 학생수는 10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 - 5 그 후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습과정도 포함해서 25 명 정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계속했지만 유치원 졸업 후 바로 루세이산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새롭게 AFS 에 입학하는 학생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 성과

2 - 1 글자를 배운 아이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130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셈을 배운 것입니다. 이 중에서 25 - 30 명이 중학교로 진학 했습니다. AFS 가 없었다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채 생활했을 것입니다.

2 - 2 학교에 다니는 습관

루세이산 초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이사 같은 이유를 제외하면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5 학년 수료율이 50%에 지나지 않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처럼 출석률이 좋은 이유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 뒤쳐지는 학생이 없다는 점과 AFS 가 생겨서 부모님도 아이들도 학교는 매일 다니는 곳이라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을 배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 3 마을에 기여

개교 직후에 마을이 폭풍과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사무소장이었던 야스다 씨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행정부나 각 NGO 와 연계하면서 마을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개에게 물린 아이한테 우리

기금 부담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고 상처입은 아이의 통원비 보조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여자아이의 장례식 진행과 비용 부담 등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던 부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지에 밀착해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개설준비 단계부터 관여해 온 저로써는 이번 폐교가 아쉬우면서도 동시에 고생은 했지만 AFS를 운영하길 잘했다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사와)

제 5 회”비빈 모임~친구 만들기~ 실시보고

야자키 메이

6 월 21 일(토) 제 5 회 “비빈 모임 ~ 친구 만들기 ~ “를 개최했습니다. 제 1 회가 작년 6 월이었으니 딱 1 주년이 됩니다. 1 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도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이번 참가자는 스태프를 포함해서 36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 소개” ”티 타임” ”주제에 따른 그룹 디스커션”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비빈 모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버려 시간이 모자라다는 행복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상대방 소개”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다른 국적 사람끼리 파트너가 된 상대방에게 자기소개를 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을 알고 나서 다른 그룹원들에게 자기 파트너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진지하게 참가합니다.

하지만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 긴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 “상대방 소개” 질문예도 준비했습니다. “100 억엔이 생기면 뭘 하고 싶습니까?” ”도라에몽이 자기 친구라면 어떤 도구를 갖고 싶습니까?” 라는 재미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또 이 질문들은 한국어와 한국어 발음을 가타카나로 표기해두어 한국어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비빈 모임이 끝나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비빈 모임을 기획 운영해 주실 분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 분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모임이 끝난 후에도 다음 모임은 언제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활동을 원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는 저희 기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분도 비빈 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멀리 시즈오카나 가나자와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비빈 모임이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비빈 모임이 끝난 후에는 지난 번과 같이 친목회를 열었습니다. 비빈 모임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친목회에서 이어갔습니다. 또 친목회 후 뜻이 맞는 사람끼리 3 차(?)도 열었습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2년 제인 비빈 모임. 앞으로도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그것을 실행하고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기획하고 싶습니다. 다음 모임은 9월 23일(화/공휴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개최였지만 이번에는 공휴일 개최라서 토요일에 참가 못 하신 분들도 이번에는 참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교류 이벤트「비빈 모임~친구 만들기~」 제6회

9월 23일(화·공휴일) 14시부터 17시반까지
토쿄 센고쿠 아시아 문화회관



참가비: 무료: 단 200엔 정도의 과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음료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침묵회: “비빈 모임”이 끝난 후 침묵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시반~20시

참가비: 일반: 2,000엔, 학생: 1,000엔, 유학생: 500엔

◆【신청방법】

동봉한 총회출석확인엽서로 8월 31일(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제공 받은 개인정보는 이 이벤트에만 사용하며 당 기금의 개인정보관리규칙에 의거해 취급합니다.

스태프 소개

토쿄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김희순(金喜淳)

전국의 기부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저와 성이 같은 스태프가 있어서 희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한일아시아기금 창립자인 우수근씨와 마찬가지로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일아시아기금 기부회원이 되어 올해 봄부터 스태프로써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일아시아기금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지부 스태프로써 활약하고 캄보디아에도 간 적이 있는 정해지 씨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한일아시아기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작년에 일본에 오게되면서 드디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도야마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겨울 연가”가 인기를 끌기 시작 할 때였으나 이번에 4년 만에 일본에 오니 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TV에서 오늘의 한국 사정이나 연예뉴스를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울 연가”를 계기로 생긴 “한류 붐”을 통해 상당히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십니다.

저도 자원봉사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바로 지금 “한국이 좋아”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일본이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간의 여행자가 늘었다고 해도 이 문제만큼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이 5명 있으면 또 다른 5명은 “싫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 못하는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진정으로 해결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아시아기금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PO법인 한일아시아기금·일본 연차총회개최연락

일정 : 2008년 9월 23일(화·공휴일) 13시~14시
 장소 : 도쿄 센고쿠 아시아문화회관 101교실

누구라도 참석·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결권은 활동회원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동봉한 엽서 및 E-mail로 신청하십시오.

문의 : jkaf@ml.infoseek.co.jp

08年4月19日~7月7日までに会費・ご寄付を下さった方(敬称略・別枠除き五十音順)

秋元久美子	大塚 紀子	神戸 博子	鋤柄 慎吾	中村 節子	古川 起與子	村松 悦子
油谷 友加	小原 勝子	栗田 瑞枝	世利 스가子	並木 陽子	細川 敦子	森 健造
岩見 豊子	加来 明子	合田 稔	瀧口 利章	長谷川容一郎	堀内 麻由実	柳田 文子
植原 光子	金澤 潤子	古賀 博子	健石 睦子	廣瀬 禎子	松田 明美	山崎 杜子
内尾亜津子	金子 十三松	桜井 靖子	田野辺 隆男	藤井 幸子	松本博一・操	吉村 悦子
大澤 龍	唐澤 一登	柴田 義之	塚本 美和子	藤井 昌子	峯村 公雄	米田 容子

ボランティア 野菊の会

입회·기부금 안내

활동회원 : 연회비 5,000엔(학생,미성년자 2,000엔)
 찬조회원 : 연회비 한구좌 5,000엔(학생, 미성년자 한 구좌2,000엔)
 법인회원 : 연회비 한 구좌10만엔
 기부금 : 2,000엔 이상

<우체국(일본)송금계좌>
 계좌번호 00180-2-25153
 계좌명 한일아시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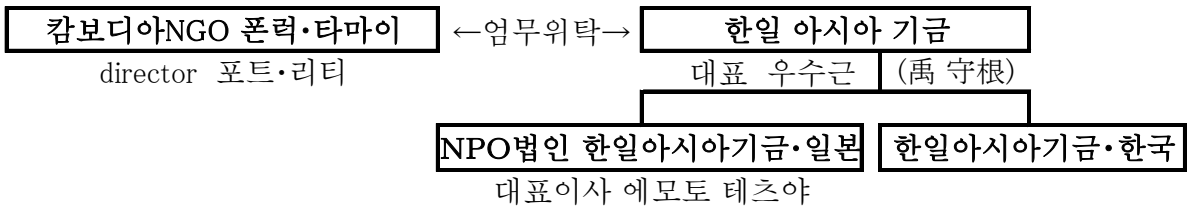
• 활동회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분, 총회 의결권 있음.

• 찬조회원:정기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는 “한일 아시아 기금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 경비는 뜻을 같이하는 스태프의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외부 지원금은 전액 캄보디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일 아시아 기금 조직



<문의>

I love Asia Fund(한일 아시아 기금)

Asia Bunka Kaikan, 2-12-13 Komagome, Bunkyo-ku, Tokyo

Zip code 113-0021

[Tel:090-4456-2942](tel:090-4456-2942) (Osawa) , Fax:03-3946-7599 (Asia Bunka Kaikan)

E-mail: jkaf@ml.infoseek.co.jp

HP: <http://iloveasafund.com/japan/>

발행인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한일아시아기금·일본대표이사 에모토 테즈야